“대책위 구성해 PD수첩 의혹 해명하라”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 교시로 현안 해결 당부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5월 1일 MBC PD수첩 방영 이후 조계종 총무원장 설정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종정 진제 스님이 교시를 내려 해명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종정 진제 스님은 5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서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에 앞서 “총무원장스님께서는 조속히 범종단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한 점 의혹 없이 소상히 소명해 주시길 바란다”고 교시를 내렸다. 교시는 원로의장 세민 스님이 대독했다.

이에 설정 스님은 “방송에서 제기된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하지만 사실 여부를 떠나 국민들과 불자여러분께 커다란 충격과 절망, 그리고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종단을 대표하는 출가자로서 깊이 참회드린다”면서 “의혹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이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정 스님은 MBC의 사과가 없을 시 이를 법난으로 규정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설정 스님은 “MBC는 부처님오신날을 목전에 두고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확인도 없이 제3자의 일방적 폭로성 증언을 근거로 방송을 진행했다. 그 결과 2천만 불자와 승가공동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고, 조계종단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MBC의 반성과 사과가 없다면 우리는 이러한 행위를 불교를 파괴시키려는 법난으로 규정하고, 전 불교도의 결집된 교권수호의 힘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고 말했다.

교권수호위원회 구성 결의
의혹 해명 위한 전권 위임
원로회의부터 위원 추천해
위원회 규명 부적절 의견도


5월 8일 열린 전국교구본사주지회의. 이날 종정 진제 스님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제기된 의혹 해소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월주 스님 등 원로 4인 추천

비공개로 진행된 본사주지회의서는 진제 스님이 당부한 대책위 성격의 ‘교권자주수호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의했으며, 설정 스님은 의혹 규명문제를 위원회가 다룰 수 있도록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성원은 원로회의와 중앙종회, 본사주지, 전국비구니회, 각급 단체 추천을 받기로 했으며, 구체적인 인원은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로회의와 중앙종회는 위원회 구성에 힘을 보태며, 종단 정체성 확립을 위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가장 먼저 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한 것은 원로회의.

원로회의는 11일 15명이 참석한 비공개 간담회를 통해 월주 · 월탄 · 종하 · 원경 스님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원로회의는 “종단이 어려운 시기에 전 불자들이 합심해 교권자주를 수호하고, 연등회 및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을 여법하게 진행하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앙종회 의장단과 상임분과위원장은 하루 앞선 10일 비공개 간담회서 입장문을 발표, “조계종단의 교권과 자주적 종교활동이 종단폄훼 세력과 외부세력, 그리고 언론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현실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난 총무원장 선거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명백한 해명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MBC는 부처님오신날을 목전에 두고 제3자의 일방적 폭로성 증언을 근거로 방송을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중앙종회는 종정예하 교시에 따라 ‘교권자주수호위원회’ 구성을 결의하며, 동시에 적극 참여해 종단 자주성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종단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총무원 부실장 일괄사표도

하지만 종단 안팎에서 쏟아진 비판에 중앙종무기관 부 · 실장 스님들이 일괄사표를 제출하면서 종단 운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중앙종무기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총무원 내 부실장 스님들은 9일 사표를 모아 총무원장 설정 스님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날 열린 교구본사주지회의의 질책이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회의서는 지난해 10월 총무원장으로 취임한 설정 스님이 6개월 넘도록 의혹에 대한 해명을 하지 않은 점과 함께 대책회의를 함에도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 못한 부 · 실장을 향한 질타가 이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각 본말사들이 MBC PD수첩 방영으로 인한 불자 및 보시금 감소, 불교 이미지 훼손 등의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총무원 차원의 책임지는 모습이 보이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까지 부 · 실장들의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지만 22일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 이후 설정 스님이 결단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앙종회 의장단 간담회에 부 · 실장들을 제외하고 설정 스님 혼자 참석하면서 어느 정도 사의를 받아들인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한편 조계종은 ‘교권자주수호위원회’를 통해 범종단 차원의 진상규명에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의 의혹 해명 등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부적절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南北 공동발원문, 3년 만에 채택 ‘눈길’

부처님오신날 동시법회서 낭독
민추본 · 조불련, 교류 물꼬 터
6.15 이후 민간교류 재개 기대

부처님오신날 한반도 전역 사찰서 울려 퍼질 남북불교 공동발원문이 3년 만에 채택됐다. 이를 계기로 남북 민간교류의 진전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본부장 원택, 이하 민추본)는 5월 1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종회분과회의실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의 채택 경과와 전문을 공개했다. 북한 조선불교도연맹(이하 조불련)과 합의해 작성된 이번 발원문은 5월 22일 전국 본 · 말사와 북한의 모든 사찰 동시법회에서 낭독된다. 공동발원문이 채택된 것은 2015년 이후 3년 만으로, 그간 경색됐던 민간교류에 긍정적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민추본과 조불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대결과 분열의 역사를 마감하고, 이 땅에 평화의 새봄, 통일의 새 시대를 갈망해온 남과 북, 해외의 온 겨레는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을 적극 지지한다”며 “부처님께서는 자기의 주인은 자신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다고 했다. 우리들은 판문점 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 자주통일의 법등으로 높이 들고 그 실천행에 용맹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양측은 “평화와 통일의 법음이 높이 울리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분위기가 넘치게 하겠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통일보살이 되겠다”고 발원했다.

민추본은 공동발원문 채택과 함께 남북불교도들의 역할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를 가까운 시일 내에 개최할 것을 조불련 측에 제의했다. 민추본은 6.15민족공동행사 준비를 위한 공동위원장 회의가 이달 23~26일 평양서 열릴 예정이어서 이후 민간차원 교류가 재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민추본 본부장 원택 스님은 “남북 불교관계의 기반을 잡는 초파일이 될 것이다. 이후 언젠가 조불련과 마주앉아 남북불교를 논의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진형 기자

韓 전통산사 세계유산 등재 ‘확실시’

ICOMOS, 통도사 · 부석사 등 4곳 등재 권고해

다른 3곳은 제외할 것을 제안
6월 24일 세계유산위서 결정
“보완해 7곳 선정토록 할 것”

불교계와 문화재청, 지자체 등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전통산사 7곳에 대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일괄등재가 어려울 수 있을 전망이다. 유네스코 자문심사기구에서 7곳이 아닌 4곳만 등재할 것으로 권고했기 때문.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은 “오는 6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바레인에서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되는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에 대해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이하 이코모스)의 최종 심사평가서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통지받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문화재청이 받은 심사평가서에서는 등재신청한 7곳 산사 중 통도사 · 부석사 · 법주사 · 대흥사 4곳만을 등재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등재 신청을 올린 봉정사 · 마곡사 · 선암사에 대해서는 “사적 중요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봉정사 경우에는 “ ‘종합승원’으로 보기에 상대적으로 다른 사찰에 비해 규모가 작다”며 제외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도사 · 부석사 · 법주사 · 대흥사 4곳에 산사에 대해서는 “7세기 이후 한국 불교의 전통을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 살아있는 종합 승원”이라며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인정받았다. 또한, 개별 유산의 진정성과 완전성 · 보존관리계획 등도 충분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전통산사 4곳의 등재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6월 24일 열리는 제42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이코모스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산사의 최종 등재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산사, 한국의 산지 승원’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권고 받은 양산 통도사 전경. 이코모스는 7곳 중 4곳만 등재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나머지 전통산사 3곳의 등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해 열린 제41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등재 결정이 난 일본의 ‘무나카타 · 오키노시마 유산군’도 이코모스가 8곳 중 4곳만을 등재할 것으로 권고했으나, 일본 측이 위원국들을 설득해 8곳 모두 등재하는 것으로 최종 결과가 수정된 바 있다.

현재 불교계와 문화재청 등은 보완 자료를 작성해 7곳 사찰이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문화재청은 “이코모스가 세계유산에서 제외할 것을 권고한 3곳 사찰을 포함해 원래 신청한 7곳 사찰이 모두 등재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작성하고, 위원국 교섭 등의 활동을 통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불기2562(2018)년 부처님 오신 날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

함께 가자! 우리~

● 지금 우리 사회는 남과 북의 평화공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고용주, 성 평등, 다문화 사회, 장애인에 대한 인식 등 다양한 문제로 갈등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이 필요한 때입니다.

● 부처님의 대자대비로 우리 모두 차별이 없는 한 몸임을 깨닫고 함께 갑시다! 좀 더디더라도 너와 나 우리가 하나 되어 함께 가는 길은 부처님과 함께 가는 길입니다.

행복한 부처님 오신 날! 함께 가자! 우리~